

국제뉴스 현지화와 그 양가적(ambivalent) 측면

김 기 영
(부산대)

I. 서론

하나의 원문에 대한 두 개의 번역문이 내용과 해석,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들 번역의 정확성과 충실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다. 두 개 모두, 혹은 둘 중 하나가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번역은 원문을 충실히 전달한다는 충분성의 규범¹⁾과 등가 원칙을 전제할 때 이러한 의혹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원문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적인 번역문들이 생산되고, 이들 모두가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버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광고 번역, 웹사이트 현지화, 소프트웨어 현지화, 국제뉴스 번역 등이다. 원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번역 뉴스들이 일간지 지면과 온라인 매

1) 투리가 제시한 번역의 기본 규범(initial norm)은 ST 문화의 규범을 따르는 충분성(adequacy) 규범과 TT 문화의 규범을 준수하는 수용성(acceptability) 규범으로 나누어진다(Toury 1995: 56-9).

체를 장식하는 일은 흔하다. 지난 1월 14일 대부분의 국내 일간지에 등장했던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사설 “Politicians and Textbooks”에 관련된 기사들도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스는 1월 13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교과서 선정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내 언론사들은 이 사설의 일부, 혹은 전체를 번역해 추가 정보와 해설,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덧붙여 소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원문에 대한 입장과 해석에서 언론사들이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문화일보는 “팩트’부터 틀린 NYT 사설”이라는 표제와 “한·일 역사 교과서 관련… 양국정상 동시 비판 파문”이라는 부제로 뉴욕타임스의 사설을 편향되고 “현실인식을 결여한” 것으로 전달했다. 이 신문은 원문의 일부분을 번역해 소개하고 남은 지면은 사설에 대한 비판에 할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은 “박근혜·아베, 정치적 견해 담은 교과서 밀어붙여” 라는 표제와 “NYT ‘정치인과 교과서’ 사설… 정부 ‘매우 유감’ 긴급회전”이라는 부제로 언론사의 입장을 투영하기보다는 내용 전달에 치중했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원문 대부분을 소개했고 여기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는 간략한 설명으로 마무리되었다. 문화일보와 달리 경향신문은 원문 사설을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신뢰할만한 기사로 받아들였고 별다른 논평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 예는 하나의 원문이 언론사의 성향과 입장, 관행에 따라 확연히 다른 누앙스를 띠는 텍스트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언론사 모두 오랜 전통과 높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일간지고, 독자들은 이들 기사를 적절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이렇듯 국제뉴스의 번역은 원문 존중과 등가라는 번역의 오랜 규범에서 벗어난다. 오히려 번역보다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번역을 의미하는 “현지화”, 즉 ‘현지에 적화하는 번역’의 개념과 훨씬 가까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현지화 개념으로 위 사례를 해석한다면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은 각각 자신들의 서브로컬(sub-locale)²⁾, 즉 ‘특정 성향의 독자군’에 맞추어 그들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기사를 생산했다고 할 수 있다.

2) 로컬(Locale)은 현지화의 기준이 되는 시장의 단위를 의미한다. 언어, 문화, 국경 등이 구분의 기준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언어, 문화, 국경에서 두 개의 다른 시장이 된다. 서브로컬(Sub-locale)은 그 하위단위에 해당한다.

번역의 오랜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이 되어온 논쟁은 원문에 얼마나 충실한 번역인가에 대한 문제, 즉 직역-의역 논쟁이었다. 직역과 의역의 양분법은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바꾸며 지속적으로 번역 실무와 이론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본격화된 국제뉴스의 번역은 이 논쟁의 축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직역-의역을 따지기에는 뉴스 번역에서 원문의 존재감이 너무도 미약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뉴스번역의 특수성과 뉴스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요소들을 시대적 키워드인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2. 뉴스의 특성과 뉴스번역 전략

2.1 뉴스의 양면성: 상업성과 이데올로기

2007년 봄 CNN방송의 모기업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 목적은 CNN방송의 한국어 더빙, 자막 방송 허용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타임워너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CNN 등 외국 방송의 한국어 방송 허용은 한미 FTA협상 도중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사안이기도 했다. 파슨스 회장의 요구는 예상대로 거센 비난 여론을 일으켰다. 시민단체, 언론노조는 물론이고 방송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더빙, 자막을 통한 CNN방송은 불가하다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왜 한국 정부와 국민들, 언론인들은 CNN의 자막, 더빙 방송에 한목소리로 반대했을까? 당시 국내 대다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다음은 국내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한겨레신문의 영문판 기사와 공중파 방송인 MBC뉴스의 2007년 3월 3일 방송 스크립트이다.

<예 1>

CNN chair's meeting with Roh sparks controversy

In the face of mounting criticism over its plans, CNN issued a statement

on March 13 saying that Parsons did not talk to President Roh about whether CNN would launch a Korean language broadcast. The statement went on to say that CNN fully recognizes and will abide by existing Korean laws which block the re-airing of foreign TV news programs with Korean language dubbing.

The regulations on dubbed foreign news shows represent efforts to protect the domestic television production market, as well as to prevent a foreign news network from influencing public opinion. (외국 뉴스의 더빙 방송에 대한 규제는 국내 텔레비전 시장을 지키고, 외국의 언론사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Hankyoreh, Mar 15, 2007)

<예 2>

앵커: 그런데 미국은 농업뿐만 아니라 방송분야까지도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이승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CNN 같은 자국방송을 재송신할 때 한국어 더빙방송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뉴스가 일방적으로 전달돼 시청자들의 혼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방송인들은 주장합니다.

김환권(한국PD연합 회장): 우리 국민들의 여론형성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곧바로 주입될 수 있습니다.

(MBC news 2007년 3월 3일 스크립트)

국내 언론사와 국민들이 CNN 한국어버전 방송에 반대하는 이유는 위 두 예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예 1>의 줄친 부분에서 보듯 국내 방송제작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 <예 2>의 내용처럼 국내 언론 담론과 여론을 강대국의 담론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 뉴스는 상업적 이윤을 위해 만들어지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언론사나 정부기관은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협상하고 싸운다. 특히 방송의 경우 지면 보도에 비해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외국 뉴스의 한국어 더빙이나 자막 방송은 허용이 힘든 것이다. 뉴스의 상품성에 대한 연

구3)는 이미 1940년대 이후 미디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둘째, 뉴스는 생산국의 담론과 이데올로기, 사회적 내러티브,4) 보도 규범의 산물이자 여론 형성의 주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뉴스를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뉴스 생산국, 주로 영미권의 이데올로기에 대다수 국민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이는 케이블 방송을 통한 뉴스의 자막이나 더빙에 대한 적절한 현지화 기제가 마련되지 못했음을 상정한 경우이다.

독일의 기능주의 번역학자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는 텍스트를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뉴스를 정보적 텍스트에 포함시켰다5). 라이스는 정보적 텍스트는 객관적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번역은 “평이한 산문(plain prose)” 양식에 따라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설명한다(Reiss1989: 108-9, Munday 2012: 112 재인용). 뉴스는 분명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텍스트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아닌 ‘선택된 사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뉴스는 이미 완벽히 객관적이지 않다. 또한 뉴스는 ‘언론 상품’임과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도구’라는 정체성을 가진다. 뉴스가 가진 같은 이와 같은 다층적이고 양면적(ambivalent)인 정체성에서 뉴스 번역의 특수함과 복잡함이 시작된다.

2.2 뉴스번역의 전략

지금까지 뉴스번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주요 개념들은 자국화와 편역, 재맥락화 등이다. 자국화(domestication)는 이국화에 대비되어 사용되며

-
- 3)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20세기 초반 이후 뉴스의 상품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미디어 경제학자 로버트 피카드(Picard R. G.)는 오늘날의 뉴스는 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독자들의 관심이 곧 광고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 결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보다는 되도록 많은 독자들의 기분을 맞추는 뉴스들이 생산된다는 것이다(Picard 2004: 61, McManus 2009: 221 재인용)
 - 4) 사회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 특정 사안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내러티브. 예) 9.11참사, 서구 민주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등에 대한 내러티브 (Somers and Gibson 1994: 38).
 - 5) 정보적 타입(informative text type), 표현적 타입(expressive type), 작용적 타입(operative text type)

이 들은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가 주창했다. 자국화와 이국화는 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요소의 번역에 관여된 개념이다.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V. 2; 40)는 자국화를 “Domestication, first introduced by Lawrens Venuti.. is often used to refer to the adaptation of the cultural context or cultural specific term(로렌스 베누티가 도입한 용어이며 주로 문화적 맥락이나 문화 지시어의 변안을 뜻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국화는 주로 이국의 문화적 맥락이나 문화소와 관련된 용어들을 자국의 것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 자국화를 이와 같은 범주에서 사용하고 자 한다. 베누티는 번역을 다층적인 힘의 역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번역자의 개입과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영어권 국가에서 행해지는 자국문화 중심적 번역행위를 비판하면서 자국화가 원전 고유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타자적인 것을 친숙한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1995: 34). 영어권 국가,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자국화 번역 관행이 타자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는 자국중심주의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번역에서 큰 함의를 갖는 자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을 뉴스번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뉴스는 저자의 예술성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 사회의 담론과 이데올로기, 독자의 기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가 속도와 중대성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언론사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문학번역과 차별화된 접근법이 요구된다. 뉴스의 번역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편집과 조작이 자국 중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힘든 것이다.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는 텍스트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번역된 뉴스가 소비되는 사회는 원문이 생산된 곳이 아니다.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흔하다. 바스넷과 비엘사(Bielsa & Bassnet)는 뉴스번역의 경우 새로운 사회와 상황, 이데올로기, 기사 작성 관행에 따라 원문을 “다시 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09: 63). 뉴스위크지(Newsweek) 북한 관련 기사의 한국어판 번역을 연구한 강지혜는 뉴스위크를 비롯한 미국 언론사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맥락에서 기사를 생산하지만 뉴스위크 한국판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맥락과 담화관행 속에서 번역 기사를 생산한다고 고찰했다.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메시지를 재맥락화한다는 의미이다(2008a: 11). 이처럼 뉴스 원문에 구성되어 있는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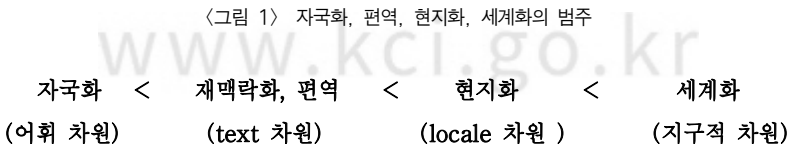
은 번역자에 의해 새로이 구현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번역자나 언론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목표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화, 언론 담론 등이 관여하게 된다.

번역(trans-editing)은 스테팅(Karen Stetting)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번역할 때 편집이 개입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1989: 371, Bielsa & Bassnet 2009: 63 재인용). 뉴스가 번역되어 새로운 문화와 상황 속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삭제되고, 독자의 부족한 배경 지식이나 해석, 해설이 첨가되는 등의 편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번역은 뉴스 번역의 속성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비엘사와 바스넷이 정리한 '뉴스 번역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다섯 가지 조정(modification)'은 뉴스번역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편집 전략을 보여준다(Bielsa & Bassnet 2009: 63-4).

1. 표제와 리드 바꾸기: 표제와 정보성 부제에 해당하는 리드는 목표 독자나 해당 매체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
2. 불필요한 정보 삭제: 목표 독자에게 이미 잘 알려졌거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삭제
3. 중요한 배경지식 첨가: 목표독자가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맥락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배경지식을 첨가
4. 문단 순서 변화: 새로운 맥락에서 정보의 연관성과 해당 매체에서 사용하는 문체에 따라 문단의 순서 변화
5. 요약: 허용된 지면에 넣거나 목표 독자들과 관련 없는 긴 기사를 줄임

하지만 “뉴스번역”의 사용은 ‘번역-번역’이라는 양분법 속에서 번역의 범주를 제한할 위험이 있고, 번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뉴스번역의 외연 역시 좁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본 연구는 뉴스의 생산, 배포, 번역, 수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과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차원의 “뉴스번역”을 사용하고 자 한다.

〈그림 1〉 자국화, 번역, 현지화, 세계화의 범주



위 그림에서 뉴스번역, 혹은 번역의 자리는 어디일까. 뉴스번역을 텍스트 차원을 넘어 세계화와 현지화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본다면 뉴스번역의 외연은 확대될 것이다. 뉴스번역의 개념 확장은 곧 번역의 범주 확장으로 이어진다.

3. 뉴스 현지화(Localization)

3.1 세계화(Globalization)

핍은 세계화 개념이 상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인다는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보았다. “첨단 상품의 경우 세계화는 기업을 통한 현지화를 포함한다. 현지화에 앞서 제품은 적절한 국제화(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케팅, 판매, 세계 시장에 대한 지원 역시 모두 세계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다”(Pym 2004: 29). 핍은 국제화와 현지화를 세계화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서는 국제화와 그 다음 단계인 현지화가 모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국제화와 현지화를 세계화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국제뉴스번역을 고찰할 것이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니다. 세계화는 198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시어도어 레빗(Theodore Levitt) 교수가 *Harvard Business Review* 5월호에 기고한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빗은 세계적 기업, 즉 오늘날의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도입했는데, 세계적 기업과 시장의 세계화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후 세계화는 교통망과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다가온 새로운 정보통신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세계화를 정의했지만 세계화는 계속 진행 중인 현상이므로 그 정의 가능성도 다양하게 열려 있는 셈이다. 『제3의 길』로 잘 알려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세계화를 “상이한 지역과 상황의 연결을 확장하는 것이며, 먼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의 사건

을 형성하고 서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세계적인 사회관계를 강화하는 것”(1991a: 64)으로 보았다. 세계화가 포괄하는 영역은 금융, 자본, 인력, 문화 등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하지만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는 인터넷과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뉴스 및 정보를 시공을 초월해 교류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의 등장과 이들을 통한 국제뉴스의 번역과 배포는 정보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뉴스 통신사들이 국제뉴스의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엄청난 양의 뉴스를 생산, 번역해 다양한 언어권으로 실시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의 세계화와 현지화에서 통신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Boyd-Barret, O. & Rantanen, T. 1998: 1).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들은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통신 기술의 발달과 혁신 속에 그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통신사는 취재의 신속성과 배포의 순간성과 광범위함으로 정보의 세계화를 대표한다. 각국의 언론사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직접 취재현장에 갈 필요 없이 통신사의 뉴스를 제공받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는 뉴스의 이동이다. 1865년 4월 14일 미국 링컨 대통령의 암살 소식이 로이터통신 기자들의 숨 가쁜 활약상 끝에 사건 12일 후인 4월 26일 런던 신문에 특종 보도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오늘날 뉴스의 배포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유될 만하다 (이문호 2012: 299).

세계화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영향력만큼이나 그림자도 짙다. 장벽과 차이가 사라지면서 자본과 기술을 갖춘 변화의 주도세력, 즉 강대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세계화 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는 것도 세계화가 지닌 이 같은 힘의 편향성 때문이다. 국제뉴스의 생산과 흐름은 무엇보다 이 편향성을 대변하고 있다. 뉴스는 주로 자본과 인력 네트워크를 갖춘 서구 언론사와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통신사에서 생산되어 세계 각국으로 전송된다. 강대국의 입장에서 생산되는 국제뉴스가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소비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그 부작용과 거부감이 커지듯, 국제뉴스의 흐름이 확대되고 자유로워질수록 뉴스를 소비하는 현지의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 뉴스 현지화는 그 저항을 약화시켜 뉴스가 현지에서 폭넓게 수용되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2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 즉 표준화(standardization)는 현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을 디자인하는 현지화의 전단계이다(LISA⁶, 2007). 다시 말해 “상품이 세계 각국에서 편리하게 사용, 적용, 번역될 수 있도록 설계(design)되는 과정”(Sprung C. 2000: x)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가 현지화를 염두에 둔 표준화 단계를 거치듯 국제뉴스도 다양한 언어권에 수용되기 위해 유사한 단계를 밟는다.

뉴스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국제화도 주로 통신사에서 담당한다.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들은 먼저 한 문장이나 한 단락으로 작성된 긴급 속보(1보)를 전송하고 뒤이어 추가되는 내용이나 정황설명을 덧붙여 2보, 3보, 종합 등을 업데이트한다. 중대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보도하는 것이 통신사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뉴스는 핵심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오고 부연 설명이나 추가적 해설이 뒤에 이어지는 역피라미드식 구조를 취한다. 이것은 뉴스 국제화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 하는데, 원문을 공급받는 세계 각 지역의 언론사들이 부차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길이 조절과 편집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기사작성 지침이나 문체규범도 뉴스 국제화의 일부분이다. AP, 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기사 작성과 번역 지침을 살펴보면 간략하고 명확한 문체에 문단은 짧고 효율적이며, 능동태를 주로 사용하고, 형용사는 단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Carcia Suarez 2005: 177; Hernandez Guerrero 2005b: 159, Bielsa & Bassnet 2009: 68-9 재인용). 이와 같은 지침 역시 상품으로서의 뉴스가 다양한 언어권에 널리 판매되고 쉽게 번역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정보의 선제시와 간결하고 명확한 양식 유지로 인해 뉴스를 전송받은 다양한 언어권의 언론사들은 내용을 다시 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원문 기사를 번역, 편집, 조합할 수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뉴스도 유통되는 상품으로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됨을 보여준다. 뉴스 국제화 과정은 제품을 표준화하여 디자인 변경 없이 다양한 시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소프트웨어의 국제화와 유사하다.

6) Localization Industry Standard Association

3.3 현지화(Localization)

현지화는 IT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판매 지역에 제품을 적합화하는 작업을 뜻하며(LISA, Munday 2012: 281 재인용), 그 단위는 로캘(Locale)이다. 스프링(Sprung, R. C.)은 현지화를 “(국제화 과정을 거친) 상품을 개별 시장에 맞도록 처리하는 과정으로 주로 번역과 적합화 과정을 지칭한다”(2000: x)고 정의했다. 펴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이 번역되고 있는 웹사이트와 뉴스 번역을 현지화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독자들에게 알맞은 새로운 텍스트 생산”이 필요하며, “번역은 등가 구현의 의무를 벗어나 새로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새로운 텍스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2004: 5), 이 설명은 뉴스 텍스트의 번역과 이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표준화 과정을 거친 뉴스는 각국 언론사에 전송되어 현지어로 번역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이데올로기와 언론 담론이 개입한다. 대부분의 번역된 국제뉴스, 특히 한미 FTA와 같이 해당 목표언어 사회의 입장이나 이익과 관련된 뉴스는 현지 담론에 부합하는 강력한 리프레이밍, 혹은 재맥락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 거시적으로는 목표사회의 이데올로기이고 미시적으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내러티브이다(김기영 2013). 번역 과정에서 국제뉴스는 표제, 부표제가 자국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교체되며 원문은 선별, 가감, 축약, 발췌의 편집 과정을 거친다. 주목할 점은 하나의 뉴스에 여러 개의 원문의 종합되거나 인용되어 소개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간접 인용의 경우 원문을 번역한 부분과 편집자의 주관, 설명이 모호하게 뒤섞인 상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뉴스 공급자와 현지 언론사의 계약 내용에 따라 원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원문의 존재감 약화 역시 기존의 번역 전략이나 틀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 3>

엘런 연준 부의장, 차기 의장 후보 1순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3-06-20

재닛 옐런 미국 연준 부의장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가장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인 재닛 옐런 부의장(자료사진) ①(AP=연합뉴스)

언론·IB 등 차기 의장 전망 조사마다 1위

(서울=②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면서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에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차기 의장을 점치는 세계 언론·금융기관 등의 각종 조사에서 재닛 옐런 현 연준 부의장이 압도적인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③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세계 투자은행(IB) 등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예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44명 중 40명, 91%가 옐런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누구를 차기 의장으로 지지하느냐는 물음에서도 응답자 38명 중 23명, 60%가 옐런을 꼽아 시장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④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4월 누가 차기 의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IB 등의 이코노미스트 52명에게 문의한 결과 옐런이 46%로 차기 의장이 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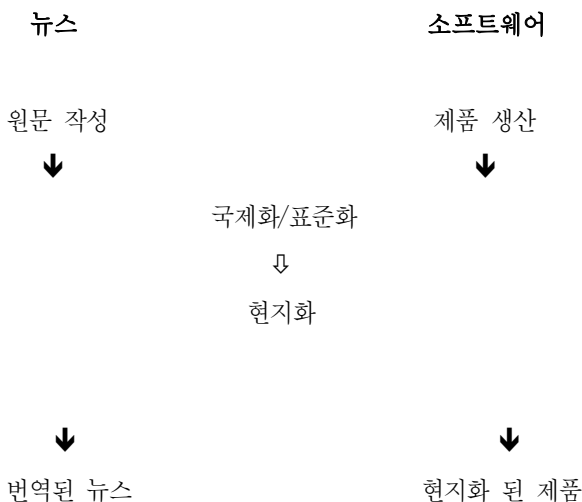
옐런은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항에서도 버냉키를 제치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연준 등 세계 중앙은행 전문가인 닐 어윈 ⑤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도 옐런이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33%로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17%) 등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하다고 전망했다. (후략)

먼저 ①에는 뉴스 생산과 배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서 해당 언론사에 원문 기사와 사진을 공급해주는 통신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국내 대표 통신사인 연합통신이 미국의 AP 통신과 공급계약을 맺고 기사와 사진을 제공받고 있다. 이 기사는 AP통신의 사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에는 기사를 번역하거나 작성한 현지 언론사나 통신사의 이름과 기자의 이름이 나타나있다. ③, ④, ⑤는 이 기사가 세 개의 다른 언론사 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합했음을 보여준다. 또 본문을 살펴보면 번역해서 소개하는 부분과 연관된 정보, 설명, 기자의 해석이 구분하기 힘들게 뒤섞여 있다.

현지화는 세계화의 개념 안에서 번역을 해석한다. 자국화와 편역, 재맥락화가 뉴스번역의 전략을 잘 나타내주는 개념이라면 현지화는 생산과 현지적합화, 배포(distribution), 수용이라는 뉴스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뉴스번역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소프트웨어와 국제뉴스의 상품화 단계



세계화된 통신망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같은 뉴스를 제공받고 유사한 정보, 입장을 공유한다. 하지만 서구 중심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생산된 뉴스의 홍수 속에서 현지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지화가 개입하는 순간 외국의 이데올로기는 어느 정도 차단된다. 번역이 내용을 현지에 맞게 각색, 조작, 변형하기 때문이다. 현지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자국화 번역은 문학번역에서 자민족중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뉴스 번역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외국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인 이질성을 목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Venuti 1995: 18)인 자국화 전략이 강대국 담론의 영향력을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현지화의 양가적 측면

많은 세계화 전문가들은 세계화를 “미국화”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학자 티모시 브레넌(Timothy Brennan)은 “미국화를 제외하고는 세계화를 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확장되어 가는 것은 세계의 다양성이 아니라 단지 미국일 뿐이라며 세계화의 일방성을 비판하고 있다(1997: 125). 부르디외와 바강(Bourdieu and Wacquant) 역시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질화의 독선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화를 미국과 그 주변의 문화, 세계관, 경제 운용 양식을 나머지 세계에 도입하는 것으로 정의했다(Bourdieu, P and Wacquant, L. 2001).

현지화는 세계화에 대해 양면적인 성격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번역과 배포를 통해 정보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필터링 과정을 작동해 세계화를 제어하기 때문이다. 지배적 문화가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때 그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기 마련이다. 마이클 크로닌(Cronin, M.)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정 제품이 많이 유포될수록 저항이 커지는데, 현지화 과정이 저항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2003: 112). 현지화는 이러한 거부감을 줄여 제품과 정보의 확산을 증대하면서도 동시에 무차별적 확산에 제동을 걸어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일조한다.

국내 언론사들은 뉴스 원문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취하고 내용의 가감과 필터링, 변용을 가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쓴 뉴스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문을 자국 맥락에 맞추어 다시 쓰는 행위를 통해 세계화의 일방성이 가지는 폐해를 줄이는 것이다. 서방의 유력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가 각 로캘에서 “다시 쓰기”를 통해 독자의 저항과 거부감을 줄인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상품 현지화의 양가성에 관한 크로닌의 통찰은 뉴스의 세계화와 현지화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현지화를 통해 국제뉴스는 쉽게 국경을 넘고 더 널리,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동시에 현지화는 주도적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제도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 방송뉴스의 한국어 자막 방송과 더빙 방송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방송뉴스의 적절한 현지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의 언론 담화가 국내 여론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

함이다. 국제뉴스 현지화는 외국의 이데올로기 안에서 생산된 뉴스에 대한 현지의 저항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강대국 주도의 세계화의 물결에서 자국의 담론을 보호하는 양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와 웹페이지 번역에서 사용되는 세계화와 현지화 개념을 차용해 뉴스 번역의 함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 확보와 분석을 통해 국제뉴스 번역과 소비에서 드러나는 세계화의 파급력과 그에 저항하는 현지화 과정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는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차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 (2013)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 현지화현상」, 『번역학연구』 14(2): 39-63.
-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 의 북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_____ (2008b)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번역학연구』 9(4): 7-40.
- 이문호 (2012) 『뉴스 통신사 24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하상복 (2006) 『부르디외 & 기든스: 세계화의 두 얼굴』, 파주: 김영사.
- Baker, M.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London: Routledge.
- _____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69.
- Bassnett, S. (2004) “What Exactly Did Saddam Say?” *The Linguist* 43(6): 176-78.
- Bielsa E. and Bassnett, S.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Routledge.
- Bourdieu, P. and Wacquant, L.(2001) “NewLiberalSpeak: Notes on the New Planetary Vulgate”, *Radical Philosophy Group* 105: 2-5.
- Boyd-Barrett, O. and Rantanen, T.(eds.) (1998) *The Globalization of News*.

- London: Sage.
- Brennan, T. (1997) *At Home in the World: Cosmopolitanism No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Arnold.
- Cronin, M. (2003) *Translation and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Giddens, A. (1990a)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Manus, J. H. (2009) “The Commercialization of News”, in Karin Wahl-Jorgensen & Thomas Hanitzsch(ed.)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New York, NY: Routledge, 218-233.
- Munday, J.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Pym, A. (2004) *The Moving Text - Localization,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Sommers, M. R. and Gibson, G. D. (1994) “Reclaiming the Epistemological ‘Other’: Narrative and Social Constitution of Identity”, in Graig Calhoun(ed.) *Social Theory and Politics and Identity*, Oxford and Cambridge MA: Balackwell, 37-99.
- Sprung, R. C. (2000) *Translating into Success: Cutting-edge Strategies for Multilingual in Global Ag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Venuti, L. (1995/2008)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News Localization and Its Ambivalent Aspect

Kim, Gi 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ince activities of translation started, issues around contentions between word-for-word and sense-for-sense translation have dominated translation practices and the field of translation studies. Noticeably, however, news translation seems to have diverged from the dichotomy as it has shifted its norms from equivalence toward text rewriting. Events and accident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re processed by media companies to be transformed into news products. And those global news products crossing borders in real time are usually going through a series of adaptation according to ideologies and public narratives of target society before reaching readers or end users. This study assumes that news translation is going beyond the classically defined translating activities and norms, expanding its boundary to ‘localization’, the software optimization process. Localization means a range of process carried out to make software products and online games broadly acceptable and consumable in its target locale. One of the most noticeable aspects of news localization is its ambivalence: it softens resistance to foreign context in which foreign news was produced; and protects national media discourse from huge wave of western centered globalization, especially when the news is concerned with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arget society. This study examines a range of theories around practice of news translation and software localization, trying to investigate overlap area between them.

▶ Key Words: news translation, news localization, localization,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rewriting.

김기영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임대우강사

trangie@pusan.ac.kr

관심분야: 뉴스번역, Globalization(세계화), Localization(현지화), 번역과 이데올로기, 다시쓰기, 조작, 번역자 정체성, 미디어 번역, 번역과 비언어적 소통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25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